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CFO Signals Q1

글로벌 CFO 경제 전망: 완만한 경제 회복 전망, 성장률 및 투자 상향조정

리더 메시지



손재호 파트너
성장전략본부 본부장

올해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 기업 CFO 총 116명 (67% 상장사)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 결과에서, 다수의 CFO들은 글로벌 경제 회복 정도와 자사 성장 기대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더불어 생성형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CFO들은 현 시점에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며, 자본조달 방식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생성형 AI 도입에 대해서는 재무기능에 미치는 영향과 우려사항 그리고 도입 시 필요한 역량과 요건 그리고 가치 측정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는 불확실한 경제 전망과 및 지정학적 긴장, 기술 변화 속에서 성장과 투자를 고민하고, 생성형 AI 도입을 우려하는 귀사가 최적의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앞으로도 기업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조사 개요

경제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기술 변화 속에서 글로벌 기업 CFO들은 글로벌 경제와 자사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생성형 AI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면서도 기술역량, 활용능력 및 위험관리 역량 확보 등의 우려사항 제기

조사 방법론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기업 CFO 총 116명 (67% 상장사) 응답자 66%는 5년~10년간 CFO 직책 역임 연간 매출이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
조사 시점 및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2월 5일~25일 (20일간 진행) 설문 및 심층 인터뷰
전망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12개월 내 글로벌 경제와 산업 전망 금융 기관 및 기업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Main Topic

글로벌 경제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경기는 완만한 회복 전망 2분기부터 회복세 및 연말 안정적 성장 전망 	자사 성장과 투자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출 및 수익성장 전망 설비투자 및 국내 고용 증가 전망 	생성형 AI 도입 시 우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Gen.AI 성능, 신뢰성 및 활용도 향후 Gen.AI 전문인력 영입 필요
------------------------------------------------------------------------------------------------------------------------	----------------------------------------------------------------------------------------------------------------	------------------------------------------------------------------------------------------------------------------------------

'24년 1분기 이후 향후 12개월 전망

전세계 권역 별 경제 전망

5개 지역 중 3개 지역 (북미, 유럽, 남미) 경제상황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은 상승

권역	현 분기 성장	'24년내 성장
북미	59% (↑)	54% (↑)
남미	14% (↑)	16% (↓)
유럽	12% (↑)	24% (↑)
중국	3% (-)	17% (↑)
아시아 (중국제외)	27% (↓)	31% (↑)

자사 성과 및 투자 기대

매출, 수익, 배당금, 국내 고용에 대한 CFO들의 전망치는 전 분기 대비 상승

전망	현 분기 성장	작년전망 비율
성장 전망	31% (↑)	11%
매출 (Revenue)	5.4% (↑)	5.1%
수익 (Earning)	7.3% (↑)	6.8%
배당 (Dividends)	3.0% (↑)	2.6%
자본투자 (Capital Investment)	5.8% (↓)	6.0%
국내 고용	1.8% (↑)	1.6%
국내 임금	3.5% (↓)	3.8%

생성형 AI 활용

생성형 AI 도입에 요구되는 기술역량, 활용능력 및 리스크 관리 등을 우려

우려사항	비율
생성형 AI 기술 역량	65%
생성형 AI 활용능력	53%
도입 시 위험관리 역량	30%
사내 비전과 연계성	26%
조직 문화 연계성 및 신뢰성	25%
재무운영 모델과 연계성	22%
인재관리 전략	19%

Agenda

1.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

2. 자사 성장 전망

- 자사 투자 의향
- 자본 조달 방식
- 주요 성장지표 전망
- 내·외부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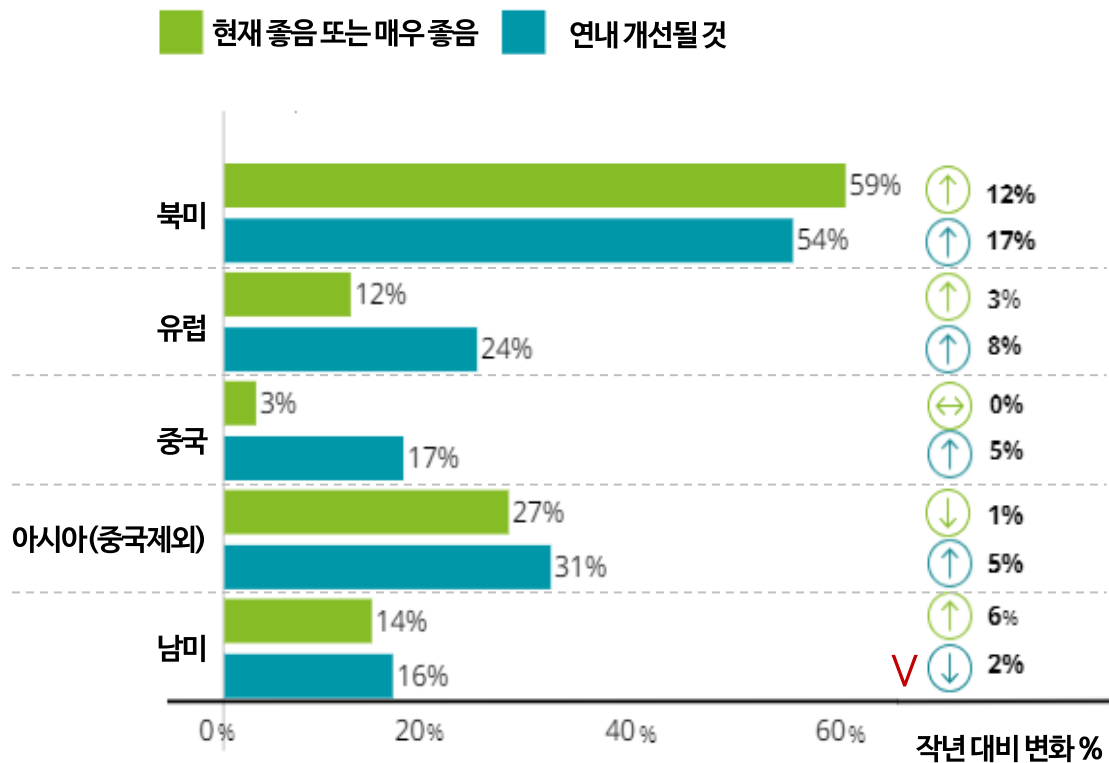
3. 생성형 AI 도입 영향

- 재무기능 도입 영향
- 생성형 AI 도입시 우려사항 및 필요요건
- 생성형 AI 도입 권고/지원/투자
- 생성형 AI 도입 가치 측정



올해 1분기 북미, 남미 및 유럽 지역 경제 상황에 대한 CFO들의 긍정 평가는 지난 4분기에 비해 상승했으며, 경제상황이 올해 연말까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CFO 비중은 남미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증가

귀하는 글로벌 경제 상황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평가하고 전망하십니까? (N=116)



올해 1분기 북미, 유럽, 남미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CFO들의 긍정적인 평가는 지난 4분기에 비해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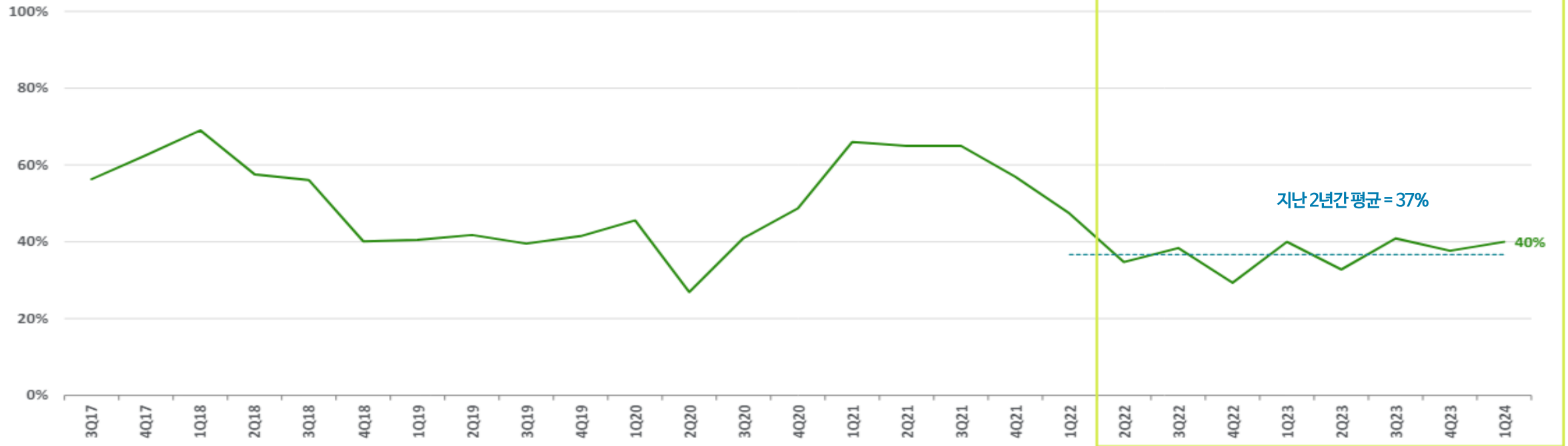
- 북미 지역의 경제 상황을 가장 긍정적 전망(59%)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아시아(27%, 중국제외), 남미(14%), 유럽(12%), 중국(3%) 순
- 향후 12개월 내 글로벌 지역의 경제 상황을 전망한 결과로는 남미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양호한 고용과 인플레이션 둔화 및 글로벌 교역 개선으로 '24년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
 -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고물가·고금리 영향 장기화, 주요국 금리 인하 지연 시 자산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경제 회복 지연 가능성 등 불안 요인이 여전히 상당하다고 우려
 - 인플레이션은 공급측 압력이 완화되며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

1) 이 지수는 현재 경제 상황을 "좋음" 또는 "매우 좋음"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과 1년 후 경제 상황을 "더 좋음" 또는 "매우 더 좋음"으로 전망한 응답자의 비율을 반영한 수치; 2) 아시아(중국제외)와 남미지역의 전망치는 '24년 Q1 부터 조사 시작

조사에 참여한 CFO들 중 40%가 지금은 투자 위험을 감수해도 좋은 시기로 응답했으며, 이는 이전 분기(38%) 조사결과와 지난 2년간 조사 평균치(37%)보다 높은 수치

지금은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N=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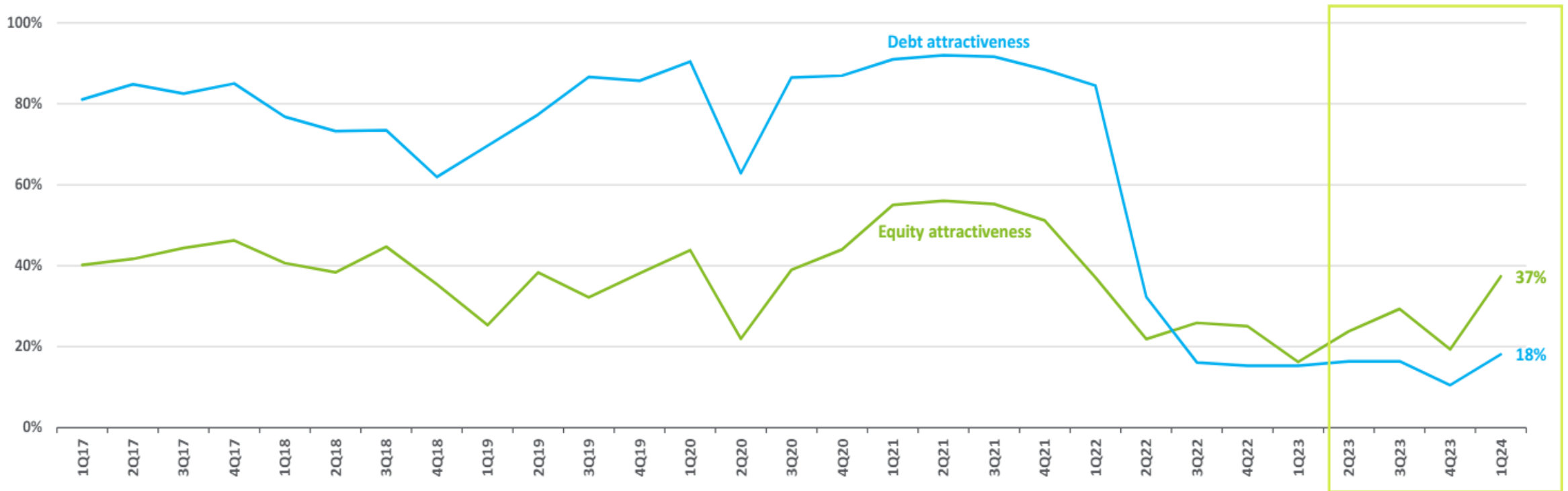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응답한 비율



작년 4분기 대비 CFO들이 언급한 부채 매력도는 10%p 증가한 18%와 주식 또는 자본조달에 대한 매력도는 19%p 증가한 37%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 주가 상승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올해 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신호가 영향을 미친 것

귀사의 부채와 자본 조달의 매력도는 어떻습니까 (N=116)

%: CFO들이 자사의 부채와 자본 조달 매력도가 높다고 언급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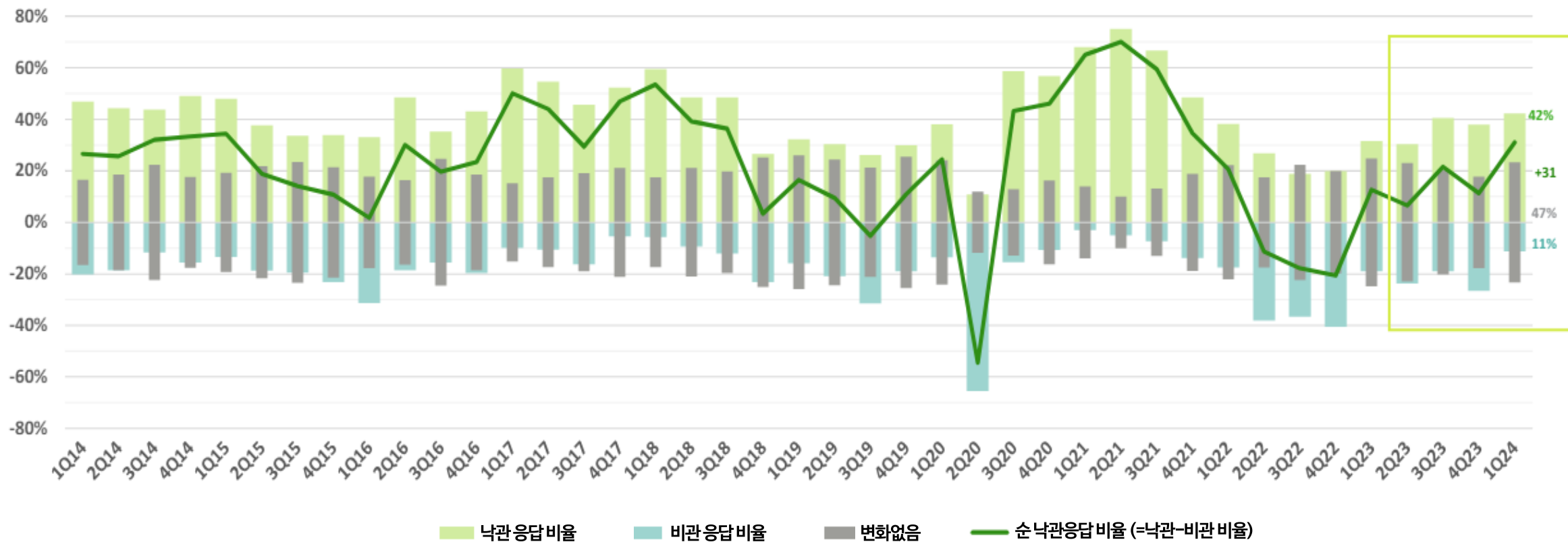


주요 성장지표 전망(1/2)

2. 자사 성장 전망

CFO의 42%는 자사의 재무 전망에 대해 낙관론을 펴고 있고, 비관적으로 전망한 CFO는 11%에 불과했으며, 전체적으로 이번 분기 CFO들의 순 낙관론(+31)은 지난해 4분기 순 낙관론(+11)보다 세 배 가까이 증가

3개월 전과 비교해서, 귀사의 재무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N=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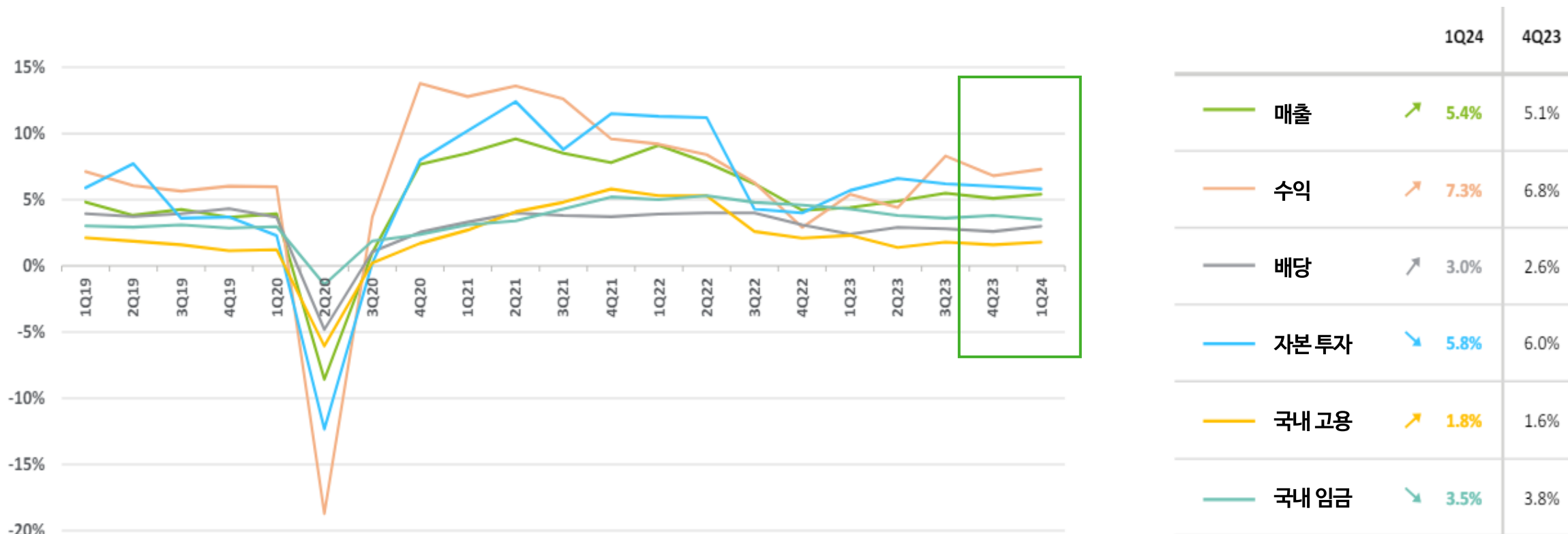


주요 성장지표 전망(2/2)

2. 자사 성장 전망

CFO들은 자본투자와 임금을 제외한 4가지 성과 지표(매출, 수익, 배당금, 국내고용)들의 기대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CFO들의 우수한 인재 확보에 대한 니즈가 반영되어 국내 고용에 대한 기대치가 전년대비 1.8%p 상승

지난 12월과 비교해서, 향후 12개월 동안 귀사의 주요 성장지표는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N=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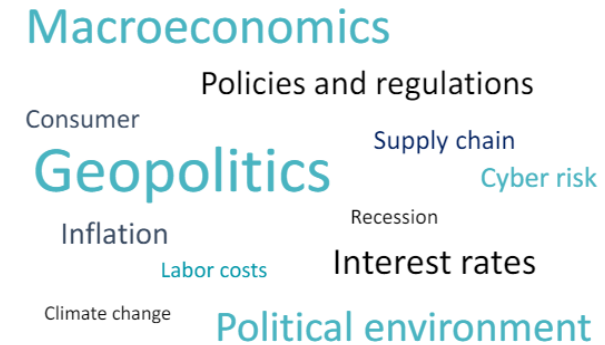
CFO들은 인재 확보와 유지를 가장 높은 리스크 요인으로 꼽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운영 효율성 제고, 비용 및 자본 관리, 혁신과 성장, 기술 및 사이버 보안이 거론됐으며, 외부 리스크로는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요인을 최대 우려사항으로 선정

귀하가 사업 운영 시 가장 우려하는 내부 요인은? (N=112)



리스크 요인	내용 상세
인재 확보 및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정 기술을 확보한 인력 확보(엔지니어) 및 기존 핵심 직군 이탈 방지 지적 자본으로서의 인재 유치 및 개발
운영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 업그레이드 실행, 신규 자산의 효율적인 운영 프로세스 효율성 제고로 시장 출시 속도 단축 및 생산성 향상
비용 및 자본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기 투자 실행(투자규모 및 적정시기 파악) 부채 레버리지, 성장관리
혁신과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요구/수요에 맞춘 전략 수립/실행 및 점유율 확보 신제품 개발 등 변화 추진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 진화 방향 파악 인공지능의 효과적인 활용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실현
사이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확보

귀하가 사업 운영 시 가장 우려하는 외부 요인은? (N=112)



리스크	내용 상세
지정학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공급망 재편
거시 경제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확실한 경제 전망 및 혼란스러운 정부 경제 정책 미 연방의 고금리 체제 고수 및 인플레이션 영향
주요국 정치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정권 교체 사회/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및 위험 증가
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금리 지속 모기지/이자율 하락, 기존 부동산 경기 회복 필요

생성형 인공지능(GenAI)은 아직 현재의 재무 인재 모델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지만, 93%의 CFO들은 향후 2년내 생성형 AI 기술을 보유한 인재 영입이 중요하다고 응답

GenAI가 현재 귀사의 재무 인재 모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N=116)

CFO의 25%는 GenAI가 현재의 재무 인재 모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고, 약 31%는 기술이 자사의 재무 인재 모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거나 판단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약 36%가 해당 기술이 재무 인재 모델에 미미한 영향을, 8%는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향후 2년 동안 GenAI 기술을 갖춘 인재를 재무 조직에 영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N=116)

생성형 AI 기술을 보유한 인재를 재무부문에 영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CFO들의 견해는 매우 또는 극도로 중요하다고 말하는 27%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7%까지 다양하고, 33%는 향후 2년내 재무부문에 생성형 AI 기술을 보유한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조금 또는 보통 수준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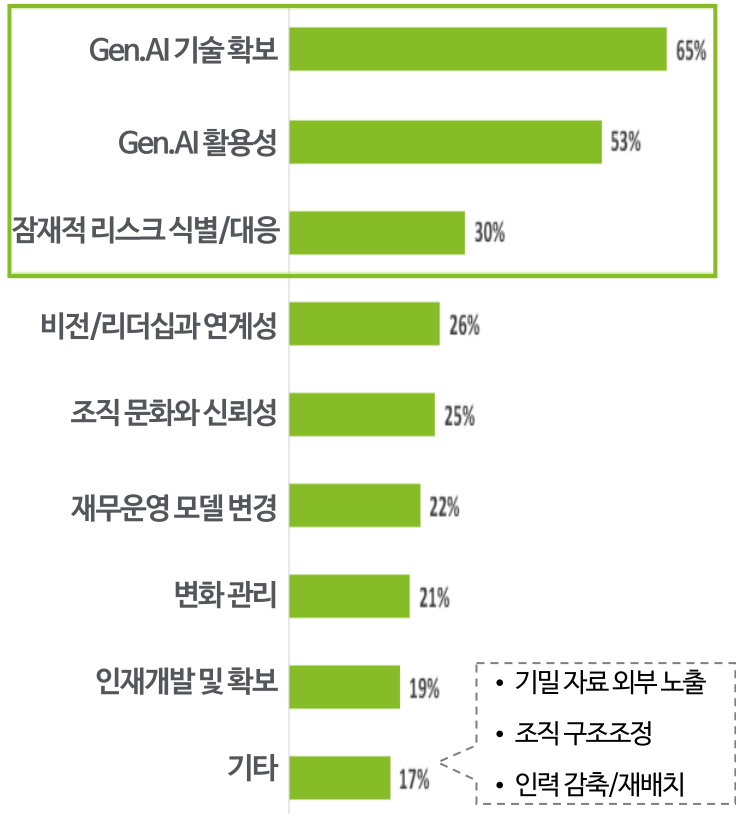


생성형 AI 도입 시 우려사항 및 필요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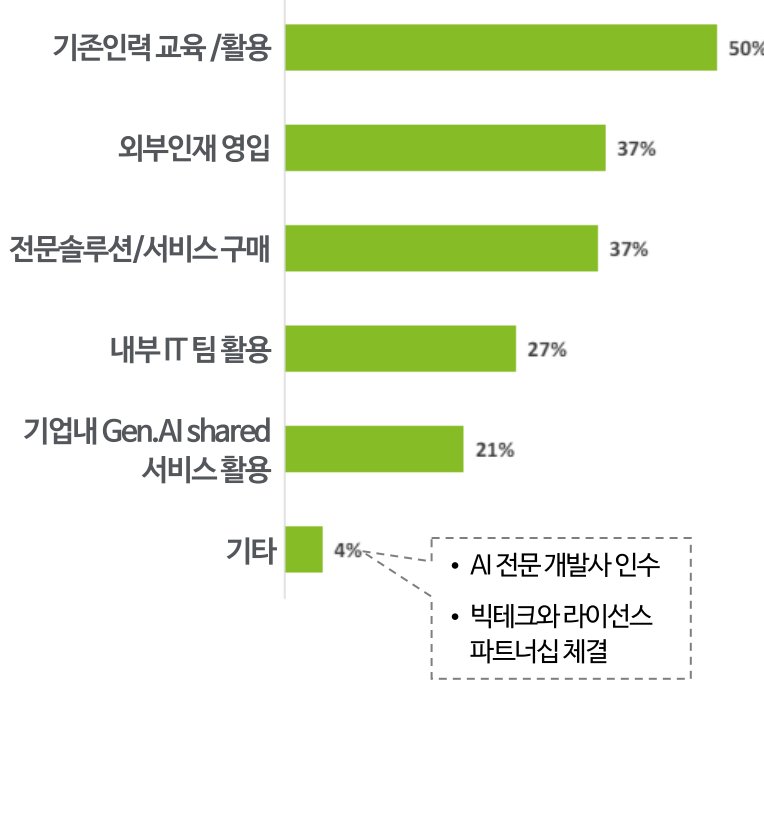
3. 생성형 AI 도입 영향

CFO들은 기업의 재무기능에 생성형 AI 도입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 관련 기술과 활용 및 잠재적 리스크 대응 역량을 꼽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기존인재 교육과 신규인재 영입을 고려하고 있으나, 실제 재무업무 도입 범위는 크지 않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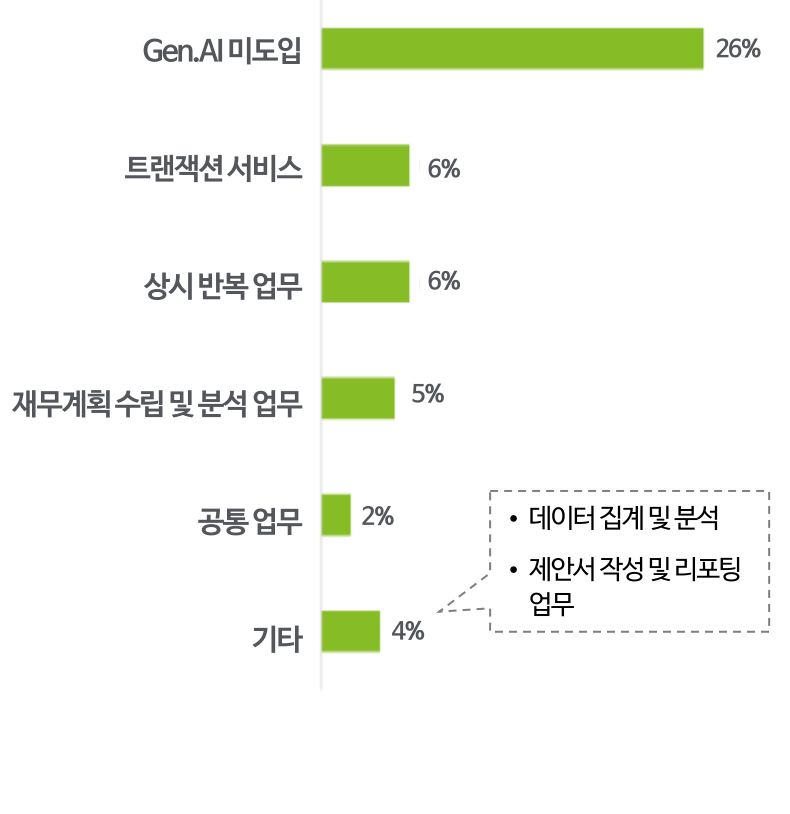
재무팀이 생성형 AI 도입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N=116



생성형 AI 도입에 필요한 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N=115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재무 관련 업무를 변경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N=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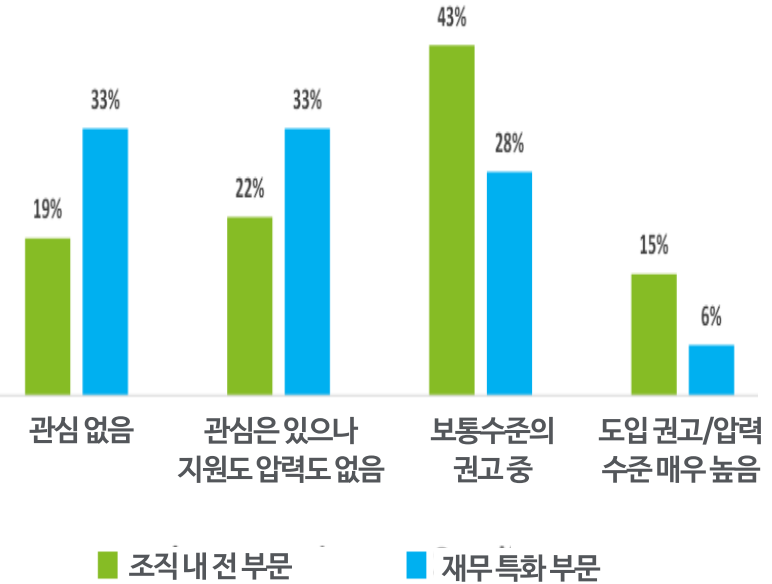


생성형 AI 도입 권고/지원/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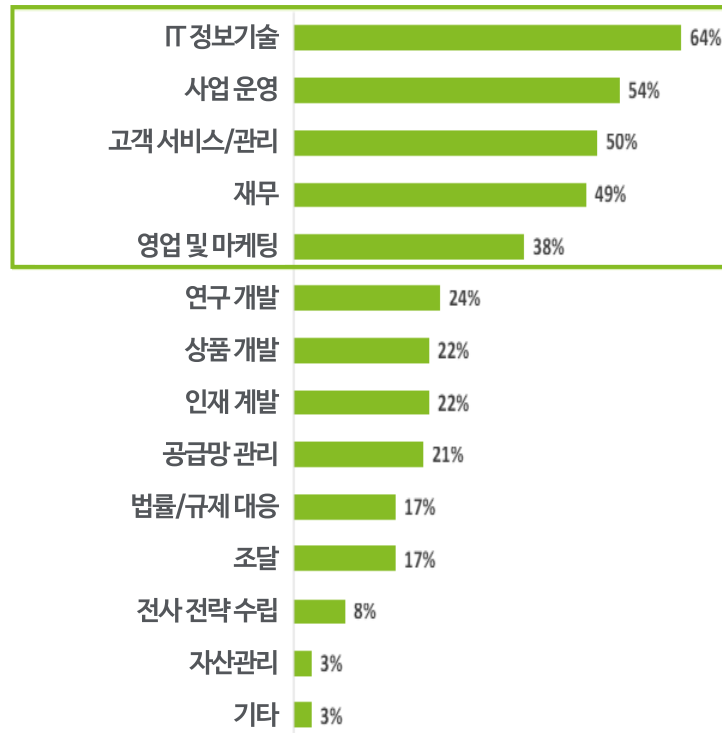
3. 생성형 AI 도입 영향

기업 이사회는 재무기능보다는 전사 전 부문 도입과 IT 정보기술 부서(기능)에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CFO들은 생성형 AI에 내년 전체 예산 중 1%를 할당할 계획이며, 금융서비스, 에너지, 헬스케어 순으로 적극적인 계획 수립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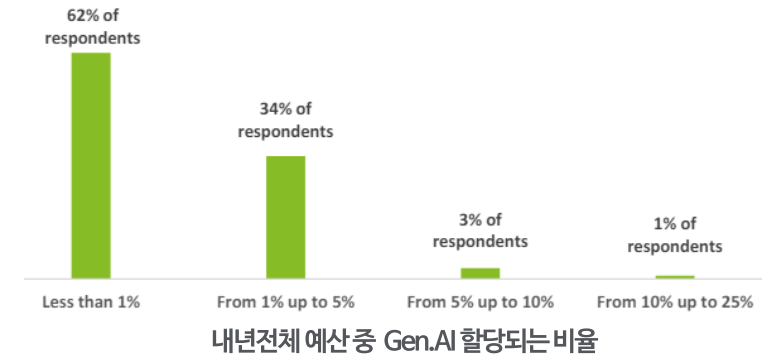
귀사이사회는 GenAI 도입을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N=113)
특히 재무 기능에 도입을 얼마나 권장하고 있습니까? (N=112)



생성형 AI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장려 하고 있는 부서(기능)은 어디입니까? (N=107)



내년에 귀하의 전체 조직 예산/자원 중 몇 퍼센트를 GenAI에 할당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N=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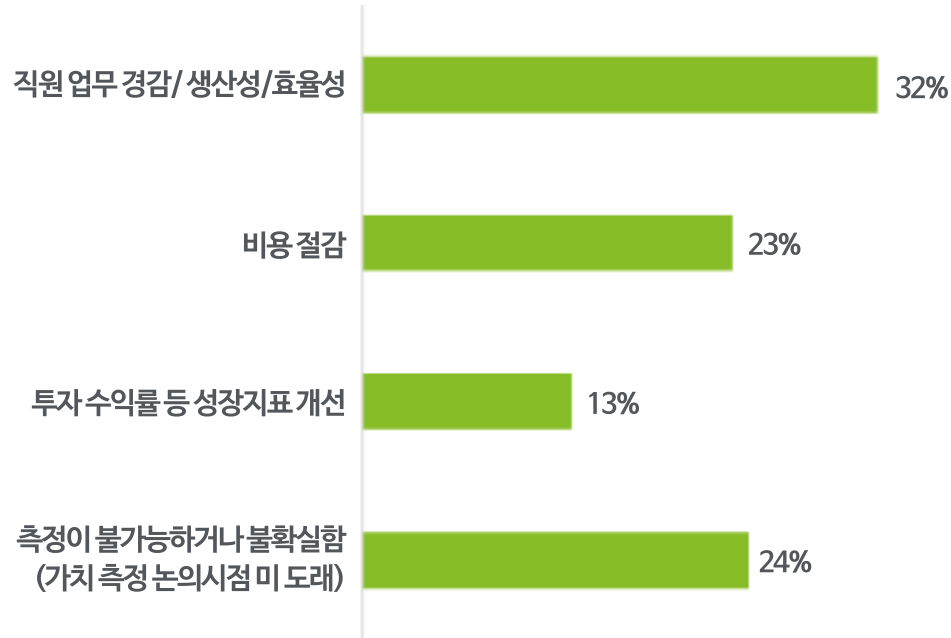


내년 예산 중 GenAI 할당되는 비율	소속 산업별 응답자 비율				
	소비산업	에너지산업	금융서비스	헬스케어	IT, 통신 및 미디어
Less than 1%	59%	69%	74%	62%	27%
1% up to 5%	27%	31%	26%	38%	73%
5% up to 10%	11%	0%	0%	0%	0%
10% up to 25%	3%	0%	0%	0%	0%

생성형 AI 도입 가치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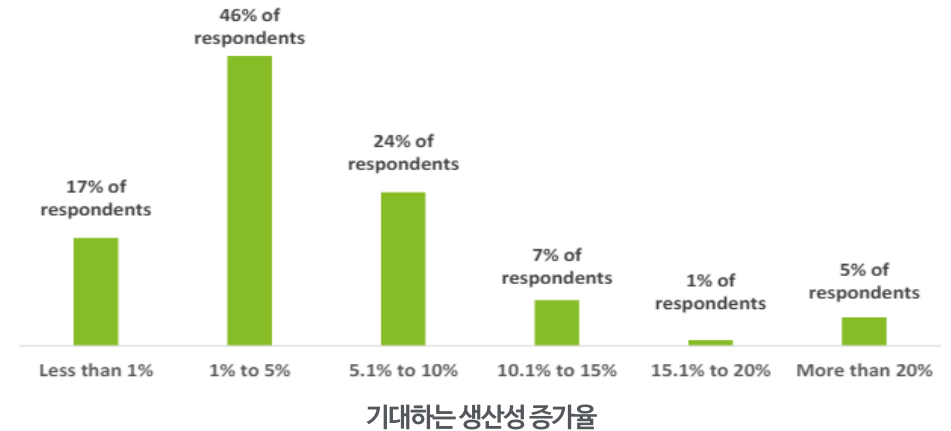
다수의 CFO들은 업무경감과 비용절감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도입 가치 측정 지표로 보고 있으며, 조사에 참여한 CFO들 중 70%는 기업의 생산성이 10% 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생성형 AI도입 가치 측정 방안과 시점에 대해서는 회의적

귀사는 Gen.AI 도입 가치(투자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계획입니까? (N=80)



- 프로세스 목표달성 시간 및 투입 인력 감소 (생산성/노동 효율성 향상)
- 비용 절감 및 운영 비용 구조 변화 (비용 효율성 향상)

Gen.AI 도입으로 귀사의 생산성이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N=112)



Gen.AI 도입으로 기대하는 생산성 증가율	응답자 비율 (연 매출 기준, 단위 US\$)			
	Less than \$1B	\$1B - \$5B	\$5.1B - \$10B	More than \$10B
Less than 1%	20%	13%	25%	17%
1% to 5%	45%	48%	56%	35%
5.1% to 10%	25%	29%	13%	22%
10.1% to 15%	0%	6%	6%	17%
15.1% to 20%	0%	2%	0%	0%
More than 20%	10%	2%	0%	9%



전 세계 경제·산업·경영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 MZ세대 소비자, ESG, 경제전망 등 **이슈 분석 리포트**
- CEO·CFO 분기 서베이, 자동차구매의향지수 등 **경영·산업 동향 지표**
- 딜로이트 전문가의 생생한 경험이 녹아있는 **영상 콘텐츠**
- 채용광고, 임직원 브이로그, 이벤트 안내 등 **다양한 딜로이트 소식**

카카오톡 채널



앱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성장전략본부 본부장

손재호 Partner

jaehoson@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리더

정동섭 Partner

dongjeong@deloitte.com

연구원

배순한 Director

soobae@deloitte.com

디자이너

박근령 Senior Consultant

keunrpark@deloitte.com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